



| | | |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<전매체> 03.28.(목) 조간 보도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03.27(수) 16시부터 배포 가능 | 배포 일시 | 03.27.(수), 8시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|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제조혁신기획실 | 책임자 | 실 장 | 이찬형 (044-300-0920) |
| | | 담당자 | 책 임 | 임인근 (044-300-0922) |
| 배포 부서 | 홍보전략팀 | 책임자 | 팀 장 | 김민철 (044-300-0720) |
| | | 담당자 | 주 임 | 박휘서 (044-300-0722) |

한-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최

-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 동향 및 환경 규제 대응 등 사례 공유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단장 안광현, 이하 추진단)은 3월 27일(수) ‘한-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’를 개최했다.
- ‘한-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’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‘2024년 스마트공장·자동화산업전(제8회)’에 추진단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열렸다.
 - 안광현 단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“한국과 독일 전문가가 참여해 제조업의 기업환경 변화와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 동향 및 환경규제 대응 사례 공유 및 확산”을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.

< 한-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요 >

- ▶ (일시/장소) ‘24. 3. 27(수) 14:30~17:30,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0호
- ▶ (참석자) 독일 제조혁신 협단체, 중기부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산학연 등 100인 내외
- ▶ (주요내용)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 동향 및 환경규제 대응 등 사례 공유

□ 이번 컨퍼런스는 ▲ 디지털 제조혁신 트렌드, ▲ 글로벌 제조데이터 표준화, ▲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3개 분야 관련 전문가 발표로 이뤄졌다.

- 독일 전문가로는 IM-X*의 Thomas Hahn 의장, LNI4.0**의 Dominik Rohmus 연구소장, VDMA***의 Reinhard Heister 전무이사 등 3인이 발표를 진행했다. 한국 전문가는 안광현 추진단장을 비롯해 KPC 이정철 팀장, 경남대 유남현 교수, KAIST 장영재 교수 등 7인이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섰다.

* IM-X : 국제 메뉴팩처링 X 협회(International Manufacturing-X Council)

** LNI 4.0 : Labs Network Industrie 4.0

*** VDMA : 독일 기계공업협회(Verband Deutscher Maschinen- und Anlagenbau)

- 이외에도 이번 컨퍼런스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국장의 환영사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(BMWK)의 Markus Hess 국장의 비대면(영상) 축사가 진행됐다.

□ 추진단은 이번 포럼 전에도 2020년부터 한국과 독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 혁신 및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. 관련 주제로 총 3회 진행된 포럼은 제조데이터 표준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밑거름이 됐다.

- 앞으로도 추진단은 디지털 제조혁신에 대한 글로벌 협력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<참고>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KOSMO)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·전문기관입니다. 한·독 민간 차원의 스마트제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LNI4.0은 '20년 12월 MOU 체결 및 '23년 11월 MOU 갱신을 통해 국제표준(AAS) 개발, 디지털전환 플랫폼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